

배포 일시	2022. 7. 27.(수)		
담당 부서 <총괄>	도로국	책임자	과 장 한명희 (044-201-3888)
	도로건설과	담당자	사무관 김갑중 (044-201-3907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가능합니다.		

이용자 안전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로터널 결로 예방 추진

- 보령해저터널 제트팬 가동 결과, 결로 현상 완화 -
-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설계기준 도입 등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6월부터 발생한 보령해저터널의 벽면과 바닥의 물젖음 현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2차례 자문회의, 현장 조사를 거쳐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닌 결로에 따른 현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.
 - 이후,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터널 내 제트팬을 가동하고 제습기를 설치한 결과 바닥과 벽면의 물기가 거의 해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.(사진 첨부).
 - 아울러, 이번 결로 발생을 계기로 결로가 터널의 구조적인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터널 이용 시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, 원인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보령해저터널을 포함해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 대해 터널 내 습도, 온도 등 결로 발생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로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트팬을 적극 가동하는 등 결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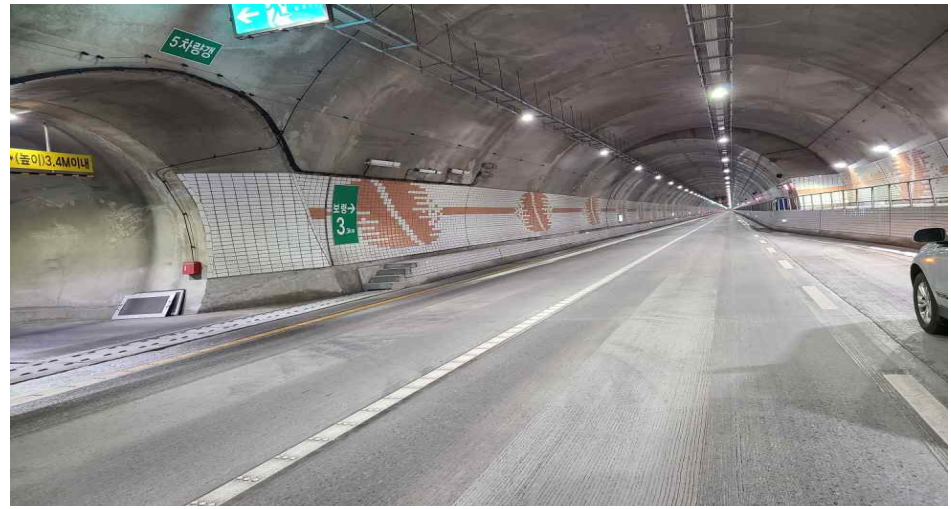
- 보령해저터널의 경우, 보다 효과적으로 결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앞으로 건설될 도로터널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결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- 참고로 도로터널 관련 해외의 설계기준에도 결로 방지를 위한 사항을 반영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, 전문가 자문 결과 환기시설 보강, 단열 강화 등의 방법을 설계기준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보령해저터널의 결로 해소에 효과적인 추가 보안방안과 설계기준 도입 등을 위해 결로 예방 효과가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각 방법들의 예방 효과, 시공 가능성,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관련 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이 예정된 ‘남해-여수 해저터널’ 등 도로터널사업은 결로 예방을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로 이용의 불편함을 찾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도로국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한명희 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김갑중 (044-201-3907)
담당부서	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현진 (044-201-3927)
		담당자	사무관	원일웅 (044-201-3922)

보령해저터널 물젖음 현상 비교 사진



< 7월 7일 보령방향 3.6km >



< 7월 26일 보령방향 3.6km >



< 7월 7일 태안방향 3.3km >



< 7월 26일 태안방향 3.3km >